



'한국 고아의 어머니' 윤학자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제 출간된 전기 '진주의 노래' 30년 만에 한국어로

아들 윤기 숭실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번역

"오늘 우리 18만 목포 시민들은 이땅의 불우한 고아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한 훌륭한 여성, 어머니 윤학자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그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빙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과 봉사의 따뜻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 한 사람의 훌륭한 사회사업가를 전국에 보내게 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1968년 11월 2일 목포역 광장, 전국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조문객은 강수성 목포시장이 낭독하는 고별사를 듣다 끝내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다음날 신문에는 '슬픔에 잠긴 목포시가, 오늘 역전광장에서 최초의 시민장' '이날 목포시는 울었다' '영전에서 통곡하는 고아들, 조문객들도 울어' 등의 제목을 단 머리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당시 이처럼 목포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이어도 물결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는 윤학자(일본명 디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1912~1968·사진) 여사.

일본 고치(高知)에서 태어난 윤여사는 7세 때 총동부 관리였던 아버지의 부임지 목포에 처음 왔다.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선인 '거지대장' 윤치호의 인품에 반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남편과 함께 고아들을 돌보던 윤여사는 1951년 1월 식량 조달을 위해 광주로 떠난 남편이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가 돌본 고아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윤학자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지난달 29~31일 목포와 서울에서 국제학술회의 유엔 세계고아의

날 제정 추진대회 등을 열고 고인의 뜻을 기린데 이어 최근 1983년 일본에서 처음 출간된 전기 '진주의 노래(홍성사)' 한국어판이 발간됐다.

'진주의 노래'는 일본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이자 학자인 모리아마 사토시(森山謙·1908~1996)가 쓴 책으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윤여사의 순애보와 헌신적인 삶을 다뤘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며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시련 등도 담겼다.

저자는 윤여사의 삶을 진주조개에 비유하며 "조개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럴수록 이물질은 속으로 점점 파고든다.

그래서 진주조개는 이 이물질을 아예

동화시키기 위해 진주질을 준비해서 아름답고 빛나는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1922~1999)는 서문에서 "고아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기를 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말했다.

한국어 번역은 윤여사의 아들 윤기 숭실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이 맡았다. 윤여사의 학창 시절, 남편과의 한때, 공생원의 옛 모습 사진도 함께 실렸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yna.co.kr

담양중·학부모회 "11월11일은 '가래떡데이'"



담양중학교(교장 김성희)는 학부모회(회장 정미숙)와 함께 지난 9월 11일 11일을 '가래떡데이'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전교생과 교직원에게 가래떡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다.

(담양중 제공)

광주 곰두리봉사회 장애 수험생 수송봉사활동



사단법인 광주시 곰두리봉사회(회장 박용구)는 최근 수능시험을 치루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송봉사활동을 펼쳤다.

목포해양대, 장애인가정에 '사랑의 연탄' 배달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안영섭) 교직원과 학생 70여명은 최근 목포시 온금동 일대 지체장애인 가정 10세대에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염주로타리클럽 사랑의 연탄 3000장 전달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염주로타리클럽(회장 박행수)은 최근 서구 광천동 10세대에 사랑의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호남대 평생교육원 제1기 상인대학원 졸업식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차준석)은 최근 광주 라마다플리자 호텔에서 '호남대학교 제1기 상인대학원' 졸업식을 가졌다.

(시민기자 주영수)

광주 남구 '우린 미란다 스타일...'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 장관상



광주시 남구(청장 최영호·사진)가 최근 '제3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열린 '2012년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린 미란다 스타일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제도다.

남구는 이를 위해 민원인 권리현장을 제정하고, 권리고지 미이행 보상금 지급, 주민참여 민원암행 고객 현장접점,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민원 출장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원인 권리고지 제도의 실현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고흥군 기업환경개선 최우수



고흥군(군수 박병종·사진)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개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계의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해 업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대회이다. 고흥군은 투자외향 기업을 대상으로 '퀵스타트업'(Quick Start)과 입주기업 경영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병종 군수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여수경찰 전상규 수사지원팀장 '대한민국 인권상'



여수경찰서 전상규(사진) 수사지원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호 및 신장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2012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전상규 수사지원팀장은 유치장 수감으로 인한 유치인의 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여수시립현암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최신 교양도서와 유치인이 요구하는 도서를 매주 30~40권씩 대여해 유치인에게 제공했다.

또 유치인의 생리현상으로 인한 수치심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 아크릴로 화장실과 차단막을 설치, 범내와 소리를 줄이는 등 쾌적한 유치장 환경

을 조성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상규 팀장은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식장에서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민원인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 조사자 눈높이에 맞춘 조사환경 개선, 북한 이탈주민, 디문화 가정 등을 위한 인권보호관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인권하면 여수경찰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장성 출신 신태호 소모그룹 명예회장 별세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광덕중·고등학교 초대 이사장을 지낸 신태호(사진) 소모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고(故) 신희태회장은 1922년 장성군 북면에서 독립운동가 기운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을 마친 뒤 귀국해 기업인의 길을 걸었다.

1952년 대공산업을 설립해 우渥가사리 수출업에 뛰어들었으며, 1968년 동화석유(현 소모석유)를 창립했다. 소모석유는 '정량공급·신속배달'을 모토로 창사 5년만에 광주·전남 유류시장 점유율 5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소모홀딩스엔테크놀로지, 소모옵티칼, 성암산업, 소모농산 등을 거느린 소모그룹의 모태가 됐다.

고인은 1976년 광주상공회의소 제9대 회장에 취임해 광주권 생산도시화 운동을 주도했

으며 본촌산단·송암산단 조성에도 힘썼다. 이후 하남산단 대기업 유치 등에도 기여했다.

그는 제9대부터 12대까지 15년간 광주상의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혼신했다. 육영 사업에도 성장을 쏟았다. 1980년 학교법인 만대학원(현 광덕중·고등학교) 초대 이사장에 취임해 2000년까지 20년간 만대학원을 이끌었다.

승하에 1남 2녀를 두었으며, 아들인 신준수 회장이 소모그룹을 이끌고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20호실(02-3010-2631)에 마련됐다. 빌인은 13일, 장지는 고향인 장성군 북면이면 신월리 선선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안내서 광주 광산구 지자체 최초 발간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접점 메뉴얼이 담긴 책자(사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장애인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민주성, 건정선이 담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설, 운영 접점 메뉴얼을 제작한 책자를 발간, 해당 시설 등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체활시설 등 크게 6가지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관리 등의 접점 사항을 다퉂�고 있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여수 출신 역사민속학자 정승모 문화연구소 이사장 별세



역사민족학자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 이사장이 11일 오전 간암과 담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9세. 고인은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결합해 역사, 민속, 인류학을 아우르는 한국 지역문화 연구의 새 장을 열었다.

1953년 여수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전업 강사,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시장의 사회사' '한국의 세시풍속' '한국의 족보' 등이 있다. 02-2258-5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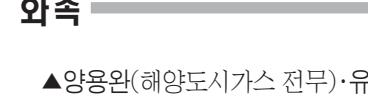
/연합뉴스

▲이화순유치원=친환경 고급자재 시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체 3층 아파트 옆 062-367-0851~3.

▲광주 콘서비토리에슬원 수강생 =어린이 성악, 보컬클레이밍, 음대 및 예고 입시교육, 이태리와 독일가곡, 한국 가곡교실 등 배우실 분. 010-9007-2355.

▲리본공예 수강생 =취미반, 지도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화축



▲양용원(해양도시가스 전무)·유미례씨 장녀 승민양·상영규·조민순씨 장남 혁찬군=17일(토) 오후 4시 광주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임광택(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대표이사)·서금자씨 장남·정철군·남현자·채경희씨 장녀 혼주양=17일(일) 오후 5시30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

▲김홍남(한남실업 회장)·김명희씨 장남 영민(남도일보 정치부 차장)·군 허기정(해남풍력 회장)·이선자씨 장녀 진양=17일(토) 낮 12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고정주(나영산업 회장)·발명진흥회 회장)·박화자씨 장남 일관(동부그룹 반도체 연구원)군 정대남(하동정씨 광주 종친회장)·임철자씨

종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원 이화회(회장 이승봉) 11월 월례회의=13일(화) 오후 6시 도지원 사무실 3층 062-225-563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부부갈

방문·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이동=언어평가 및 언어 교육을